

저자 (Authors)	안승대 An, Seung-Dae
출처 (Source)	동아인문학 52 , 2020.9, 217-247 (31 pag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Humanities Studies in East Asia 52 , 2020.9, 217-247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인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45572
APA Style	안승대 (2020). 원효의 화쟁사상과 화쟁교육론의 대안교육적 가능성. 동아인문학, 52, 217-24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3 11: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의 화쟁사상과 화쟁교육론의 대안교육적 가능성

안 승 대*

<目次>

- | | |
|---------------|----------------------|
| I. 서론 | III. 화쟁교육론: 목적과 실천원리 |
| II. 화쟁교육론의 근거 | IV. 논의 및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립과 경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구의 근대교육, 한국교육의 대안으로서 화쟁교육을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화쟁교육론의 근거로써 화쟁사상이 서구의 동일성의 사유체계, 실체론과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불일불이의 사유체계를 통해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원효는 승려이자 교육자이기도 하였기에 원효의 화쟁사상은 화쟁교육의 사상으로 분석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점, 원효의 일심무애화쟁의 사상체계 속에서 화쟁은 실천적 작용으로서의 用의 사상이기에 화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연구는 화쟁교육론의 교육목적으로는 不二의 화쟁인과 화쟁사회의 실현, 실천원리로는 불일불이, 훈습, 용의 작용원리를 각각 제

* 한국,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쟁교육론의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쟁교육론은 근대적 교육, 한국 교육이 추구해온 고립적 독립적 자아대신 연기적 자아 관계 속의 자아개념으로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교육론의 성립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화쟁교육은 근대교육, 한국교육의 문제점인 경쟁과 대립, 효율성과 생산성 대신 공존과 자연, 생태적 가치를 추구한다. 셋째, 화쟁교육은 교육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으며, 그 어떠한 허무주의나 회의론도 부정한다.

주제어 : 화쟁사상, 화쟁교육, 불일불이, 화쟁인, 화쟁사회

I. 서론

산업사회, 근대사회는 서구의 합리주의 이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성중심의 합리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자연은 피해되어 생태학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¹⁾ 인간사회 역시 효율성 추주로 인한 도구화 수단화의 폐해를 겪고 있다.

교육 역시 이와 같은 효율성, 유용성,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는 생산성을 위한 부품기계를 만들 듯이 능력있는 인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이 운영되었고, 아이들은 이러한 생산성과 유용성의 척도로 평가되었다.²⁾ 서구 교육이론에 입각해 진행되어 온 한국

1)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 《한국영유아보육학》, 86,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a, p.108.

2)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I>, 《한국영유아보육학》, 8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b, p.84.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교육, 도구주의 교육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시경쟁교육, 개발주의 교육, 안보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은 서구교육론의 도구주의, 이원론의 영향 속에 전개되어 온 한국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자 모습들이다. 산업사회 근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교육은 학력 즉 교육자본의 획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³⁾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식에만 매달리는 교육은 그 누구도 인간화 인격화 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그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주인이 되고 만다.⁴⁾ 입시교육은 경쟁교육을 통해 중등교육을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즉 입시교육은 보다 나은 학력과 학벌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경쟁 속의 교육, 수량화 점수화된 교육 속에서 점수와 성적은 물신화하며 학생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⁵⁾

한국교육의 또 다른 이름은 개발주의 교육이다. 근대화교육, 국제경쟁력강화 교육은 개발주의 교육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개발주의 교육은 경제개발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인간을 우위에 둔 채 자연을 도구화 대상화해 왔다. 안보교육(반공교육)은 근대교육의 이원론적 세계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교육은 오랫동안 상대방(공산주의, 북한)은 악이며, 우리(자유민주주의, 남한)은 선으로 가르쳐 왔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21세기 한국 경쟁교육의 현 모습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중심의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의 상품화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신자유주의 교

3) 이두휴, <교육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9(1), 한국교육사회학회, 1999, p. 23.

4) Sarup, M. 저, 이해영외 역, 《마르크스주의와 교육이론》(서울: 한길사, 1987)

5) 안승대,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따른 한국교육문제의 분석>, 《교육학연구》, 42(4), 한국교육학회, 2004, pp.105-116.

육은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교육불평등 심화, 공동체적 삶의 해체,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소외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⁶⁾

이처럼 한국교육은 서구 근대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원적 대립구조에 입각한 교육, 개발주의 교육, 경쟁교육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한국교육이 극복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서구 근대사상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적 사상, 대안적 교육사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 시대는 새로운 질적인 도약,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고 있다.⁷⁾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주의 생태주의⁸⁾가 적극 모색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전통은 바로 이러한 일원론, 서로 존중하는 세계관, 상호의존적 존재를 추구하기에 경쟁교육 대립적 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서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원효의 화쟁사상은 근대성 너머의 자유와 논리를 지향하는 대안적 사상⁹⁾이자 화해와 통합의 사상이기에 경쟁교육 대립적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적합하며, 따라서 이 연구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대안적 교육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원효의 교육론을 다루어 왔으나 이 연구들은 《대승기신론소 별기》를 중심에 둔 연구¹⁰⁾이거나 유아교육을 중심에 둔 연구들¹¹⁾로써 원

6) 노상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민주적 교육논리>, 《한국교육연구》, 5,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9, p.20.

7) 조순영·임재택,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p.272.

8) 권은주·신양재, 2014a, p.108.

9) 이도흠,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서울: 자음과 모음, 2015), p.14.

10)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인식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 《한국영유아보육학》, 71,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a;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인식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I>, 《한국영유아보육학》, 7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b; 권은주·신양재,

효의 전체적인 교육사상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탐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원효의 사상은 화쟁사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교육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화쟁사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원효의 교육론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¹²⁾은 이러한 화쟁의 관점을 결여한 채 원효 교육론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원효의 화쟁사상에 입각한 교육론, 즉 화쟁교육론을 탐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쟁교육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어떻게 화쟁교육론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파악함으로써 이 연구는 화쟁교육론 성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화쟁교육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이론은 교육의 목적, 내용, 실천원리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립적 경쟁적 한국교육의 대안으로서 화쟁교육론의 교육목적, 교육의 실천원리 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셋째, 화쟁교육론이 대립적 경쟁적 한국교육의 문제해결에 지니는 함의와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구교육이론의 한계, 서구사상에 입각한 근대교육론, 경쟁과 대립의 한국교육의 대안으로서 화쟁교육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화쟁교육론이 어떻게 현대 교육론의 대안적 사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 《한국영유아보육학》, 86,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a;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I〉, 《한국영유아보육학》, 8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b; 정석환, 〈교육목적론의 입장에서 본 대승기신론〉, 《교육사상연구》, 11, 한국교육사상학회, 2002.

11) 조순영·임재택,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12) 이효령,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3, 1999a; 이효령,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사상과 문화》, 3, 1999b.

II. 화쟁교육론의 근거

1. 원효의 삶과 화쟁교육

원효의 삶은 화쟁을 위한 삶이었으며, 따라서 화쟁교육의 삶이기도 하였다. 원효는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서 화쟁을 설교하였다. 《十門和靜論》은 그의 삶과 사상이 화쟁으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저술이다. 또한 그는 실천(行)을 통해서 화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불교 승려이자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불법을 펼치는 승려였지만, 대중교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중생구제에 일생을 바쳤던 특출한 교육자였다.¹³⁾

원효는 저술활동과 수행활동을 펼친 승려이기도 하였지만, 대중 속에서 대중을 교화시키기 위해 힘쓴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무애가 무애무를 만들어 대중교화를 몸소 실천하였으며,¹⁴⁾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불교는 지배층의 사상적 기반이었으나, 원효는 이를 교육사상으로 전환하여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깨달음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쳤으니, 대중교육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 대중을 교화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간 교육자였던 것이다.¹⁵⁾

원효의 삶은 화쟁을 위한 삶이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十門和靜論》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온갖 이설들을 화회 회통시키는 화쟁사상을 완성해 나갔다. 또한, 그는 眞俗不二, 즉 깨달은 자와 장차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대중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직접 교화하는 실천행을 몸소 행한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의 삶은

13) 이효령, 1999a, p.119.

14) 일연 저, 최호 역, 《삼국유사》(서울: 홍신문화사, 2002), p.365.

15) 권은주·신양재, 2012a, p.270.; 이효령, 1999a, p.119.; 김노연, 〈원효의 대승적 창조적 전인 실천교육〉, 《창조교육논총》, 창조교육학회, 14, 창조교육학회, 2012, p.158.

화쟁의 실천이기도 하였으며, 화쟁교육의 실천행이기도 하였다.

화쟁교육론은 화쟁사상을 활용하는 교육론, 화쟁사상을 토대로 하는 교육론이다. 따라서 화쟁교육론의 근거는 우선 화쟁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쟁사상은 화해와 회통을 추구하는 사상이며, 근대성 너머의 사유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서 대안적인 교육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화쟁사상은 원효의 일관된 사상이자 그의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화쟁은 쟁론(諍)을 화회(和)시키는 사상, 즉 다름을 화회시켜 원융회통하게 하는 화해와 공존의 사상이다.

여러 경전의 부분을 통섭하고 만 가지 흐름을 한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하니, 불의(佛意)의 지극한 공정함을 열어젖히고, 백가의 이쟁(異諍)을 화해(和)하게 하여 드디어 시끄러운 사생(四生)으로 하여금 無二의 실상에 돌아가게 하고 꿈꾸는 긴 잠을 大覺의 極果에 도달하게 하였다.¹⁷⁾

백가의 쟁론을 화해시키고 백가이쟁을 융통하게 하는 사상이 곧 화쟁사상이다. 화쟁사상은 화쟁교육론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며, 21세기의 대안적 사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화쟁교육론이 왜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플라톤 이래 서양철학은 동일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해왔으며, 이질적인 것을 배제해 왔다. 실체론과 이분법은 동일성을 단단한 형이상학으로 고정시켜 동일성을 유지 강화해왔다.¹⁸⁾ 이데아와 그림자, 주체와

16) 김영태, <열반경종요에 나타난 화회의 세계>, 《한국의 사상이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282.; 이종익,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한국의 사상이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232.

17) 統衆典之部分 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 和百家之異諍 遂使擾要四生僉歸無二之實性 夢夢長睡並到大覺之極果 極果之大覺也. 원효, <열반종요>,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524.

18) 이도흠, 앞의 책, p.160.

객체, 주체와 대상,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통해 전자에 특권을 부여하고 후자를 배제해 온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주체중심의 사고는 동일성에 타자를 배제하는 인식과 힘을 부여하였으며, 자아는 주체로 격상되었다. 근대교육, 한국교육 역시 이와 같은 동일성과 이분법, 자아중심적 사상 속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주의 경쟁교육의 폐해를 낳고 있다. 입시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한 경쟁심화와 소외문제, 분단교육을 통한 적대적 사고의 형성, 개발주의를 통한 자연의 도구화와 수단화 등이 그것이다.

아도르노, 데리다 등은 동일성의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일성의 사유체계를 부정한다. 이원대립은 그 근거가 없으며,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양이 동일성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동양사상의 특징은 관계성의 특징을 보여준다.¹⁹⁾ 불교사상이기도 한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러한 이원적 사유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상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대성의 사상이나 방법론이 실체론, 동일성, 이분법적 모순을,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지닌다면, 원효의 철학은 연기론, 퍼지, 차이, 생태적 사고의 논리체계를 제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²⁰⁾

화쟁사상은 둘을 하나로 융합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同이 아니라 非同의 철학이며, 一이 아니라 不一의 철학이다. 화쟁사상은 대립되는 주장을 화해시키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합일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용이이불일이며, 무이이불일의 사상인 것이다.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하였으므로(不一而融二) 진 아닌 현상이 일찍이 속이 된 것이 아니고, 속 아닌 이치가 일찍이 진이 된 것도 아니다.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가 아니므로(融二而不一)

19)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서울: 돌베개, 2004), p.23.

20) 이도흙, 앞의 책, p.41.

염정의 현상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극단을 벗어났지만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옳고 그름의 뜻이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파악이 없지만 세우지 않음이 없고 세움이 없지만 세우지 않는 것이 없다. 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인 것이다.²¹⁾

원효는 다양한 불교의 쟁론들을 화회시키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둘을 화합하였지만 하나가 아니며,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한다. 화쟁은 이처럼 불일불이의 사상이며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실체론은 나의 존재,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화쟁은 이를 넘어서는 不一의 철학이자 사유체계이다. 화쟁사상의 존재론은 관계맺음을 통해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들의 관계망으로서의 존재이며, 나를 떠나 나를 보는, 나를 낫설게 하는 새로운 자아관, 주체관이다.²²⁾ 이분법은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만, 화쟁은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를 불일불이의 체계와 논리 속에 융화시킨다. 근대교육은 자아, 주체, 독립된 주체와 자아 위에서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지만, 화쟁교육은 나 아닌 나로서의 자아와 주체, 독립된 주체의 개념을 넘어서는 불일불이의 사유를 지향한다.

한국의 교육은 대립적 사고 경쟁적 사고를 통해 학생을 소외시키고, 대립하게 하였다면, 화쟁의 교육은 서로를 화해하게 하고 공존하게 하는 불일불이의 교육을 지향한다.

21) 不一而融二 故非眞之事 未始爲俗 非俗之理 未始爲眞也 融二而不一 故眞俗之性 無所不立 染淨之相 莫不備焉 離邊而非中 故有無之法 無所不作 是非之義 莫不周焉 爾乃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爲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원효, 《金剛三昧經論》,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604.

22) 조순영·임재택, 앞의 글, pp.273-278.

2. 일심무애화쟁과 화쟁교육

원효의 사상은 화쟁사상이며, 또한 일심 무애 화쟁사상이다.²³⁾ 원효의 화쟁사상은 일심의 실현이기도 하며, 이상적 삶의 형태인 무애의 표현이기도 하다.²⁴⁾ 《대승기신론소 별기》는 인간을 일심이문삼대의 사상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일심은 이문으로 나타나는데, 生滅門은 혼탁한 마음, 번잡한 현실세계의 인간의 마음이며, 眞如門은 깨끗하고 고요한 인간의 마음인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三大는 體相用인데 體大는 진여 자체를 말하며, 相大란 진여가 갖추고 있는 훌륭한 덕성을 말하며, 用大는 중생구제 작용을 말한다.²⁵⁾ 다시 말하면 체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세계 즉 형상을 말하며, 상은 체가 우리 앞에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실재계로서 질료를 나타내며, 용은 체와 상이 작용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작용인을 뜻한다.²⁶⁾

원효의 화쟁사상의 특징은 진속불이, 즉 진여문과 생멸문의 회통가능성을 적극 주장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기신론은 일심이문에서 체는 진여의 세계로, 상용은 생멸의 지배를 받는 현상세계로 설명한다. 즉 기신론은 체상용의 삼대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여(체), 생멸(상용)의 대응구조와, 생멸문 내에서의 체상과 용의 대응구조라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원효는 생멸문의 체 또한 체로 보며, 기신론의 체용불이적 사고를 더욱 발전시켜 생멸의 세계 자체에서 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²⁷⁾

23) 이효걸,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002, p.6.; 안옥선, 〈평등, 자유, 자비의 실천으로서의 화쟁〉, 《철학》, 82, 한국철학회, 2005, p.73.

24) 안옥선, 앞의 글, p.73.

25) 권은주·신용재, 2012a, p.271.

26) 이도흙, 앞의 책, p.400.

27) 김종인, 〈체용과 원효의 화쟁〉, 《동양철학연구》, 24, 동양철학연구회, 2001, pp.18-20.

이를 통해 원효는 심진여와 심생멸의 不一不二的 관계 즉 화쟁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원효는 진여와 생멸의 회통, 즉 無明이 곧 해탈이라는 매우 급진적인 채용불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생멸문 안에도 자체가 있지만 다만 체로서 상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았다.²⁸⁾

진여문은 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리를 나타냈다. 상을 어렵게 하였으나 제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상을 어렵게 하여 보존하지 않으므로 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생멸문에서는 리를 억누르고 사를 이루었다. 리를 억누르긴 하였으나 파괴하지는 않았으므로 리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리를 억누르긴 하였으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한 체를 드러내는 것이다.²⁹⁾

이처럼 원효의 화쟁은 체와 상용이 서로 이문 속에서 회통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체와 상용의 세계가 실제로 상즉하며, 현상세계와 진여세계가 맞닿아 있는, 진여세계가 일상경험의 세계를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³⁰⁾

진속불이는 곧 일심여래장과 연결되는 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 생멸문 속에서 생사의 고뇌에 시달리는 중생 또한 용과 상이 회통하고 진여의 체가 혼습하니, 이는 곧 이들도 진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즉 장차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 즉 일심 여래장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원효의 화쟁, 진속불이의 사상이 모

28) 生滅門內亦有自體 但以體從相 故不別說也.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40.

29) 眞如門是泯相以顯理 泯相不除 故得攝相 泯相不存 故非示相 生滅門者攬理以成事 攬理不壞得攝理 攬理不泯 故亦示體.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41.

30) 김종인, 앞의 글, p.25.

든 중생을 향한 중생교화의 사상 즉 화쟁교육의 사상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효걸³¹⁾은 원효의 사상 즉 일심, 무애, 화쟁 사상을 일심이문삼대의 체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심은 전체성(세계)의 최종적 근거이면서 보법으로서 세계를 연기시키는 바탕이라면, 무애는 화엄학의 사사무애(事事無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물 사건의 상호 관계성을 뜻한다. 화쟁은 무애의 관계성을 가진 일심의 무대 위에서 주체가 펼치는 역동적 활동이다. 즉 일심무애는 존재론적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면, 화쟁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작용이다. 일심의 목적, 무애의 관계성은 결국 화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일심과 무애를 체로 하고 화쟁을 용으로 하는 체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일심이 전체성이며 무애가 관계성이라는 체상의 관계가 성립하며, 일심이 체이며 무애가 상이라면 화쟁은 용이 된다. 즉 원효의 사상체계는 이와 같은 일심이문삼대의 체상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화쟁은 삼대의 용 즉 일심이문의 작용, 실현의 적극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일심무애화쟁 속에서 볼 때, 화쟁은 주체의 측면, 인간의 자기화해와 인간관계의 화해,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화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쟁의 목적은 우선은 인간의 본원적인 자기 이해 즉 귀일심원에 있으며, 이를 통한 세계 속의 화쟁 실현 즉 요익중생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이와 같은 용으로서의 화쟁의 특징은 화쟁사상이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상임을 말한다. 이는 곧 화쟁사상이 대중교화, 요익중생의 실천, 즉 화쟁교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즉 화쟁은 적극적 능동적 실천적 용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결국 대중교화의 실천 즉 화쟁교육의 지향점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31) 이효걸, 앞의 글, pp.10-17.

32) 이효걸, 앞의 글, pp.23-26.

할 것이다.

Ⅲ. 화쟁교육론 : 교육목적과 실천원리

1. 교육목적 : 不二不二의 인간과 사회

칸트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형성작용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말한다. 즉 교육의 목적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관,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화쟁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대립과 갈등을 원용회통하는 사상적 특징을 지닌다. 화쟁은 불일불이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화쟁교육의 목적은 이와 같은 화쟁의 불일불이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이 곧 불일불이의 인간, 불일불이의 사회 추구이다.

불교는 이상적 인간을 추구하고, 또한 이를 통한 이상세계 건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이상과 합치되는 점이 많다. 원효의 화쟁사상 역시 이와 같은 이상적 인간, 이상세계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목적과 합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효는 기신론을 통해 개인적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화엄경을 통해 사회적 깨달음을 성취하였다.³³⁾ 따라서 우리는 기신론소별기 등의 인간 이해를 통해 원효의 인간상을, 화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원효의 이상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기신론은 일심이문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은 일심의 존재이자 이문의 존재이다. 일심은 이문을 진여문과 생멸문의 이문을 포섭하며 회통한다.

33) 고영섭, <원효의 화엄학>, 《한국의 사상가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506.

기신론의 심진여문은 능가경에서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고, 심생멸문은 능가경에서 “일심이란 여래장을 말한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모든 법은 생멸하지 않고 본래 적정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일심 그 자체는 본래 깨달음이지만 무명에 따라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이 문에서는 여래의 성품이 감춰져서 나타나지 않아 여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이문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일심이 되는가? 염정제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진과 망의 이문도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일”이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법은 실하여 허공과 같지 않아, 그 성품은 스스로神通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 마음이라 이를 것인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것인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일심”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³⁴⁾

진여문은 염정이 두루 통하는 곳이다. 두루 통하는 것 외에 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염정제법을 두루 통섭할 수 있다. 생멸문은 염정이 따로 다투어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기에 염정의 법이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기에 또한 모든 법을 통섭할 수 있는 것이다. 통섭하는 것과 따로 드러낸 것이 비록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두 문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³⁵⁾

34) 如經本言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如來藏 此言心眞如門者 卽釋彼經寂滅者名爲一心也 心生滅者 是釋經中一心者名如來藏也 所以然者 所一切法無滅本來寂靜 唯是一心 如是名爲心眞如門 故言寂滅者名爲一心 又此一心體 有本覺 而隨無名動作生滅 故於此門如來之性隱而不顯 名如來藏 …二門如是何爲一心 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然既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唯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自之 強號爲一心也. 원효, 《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p.704-705.

35) 欲明眞如門者染淨通相 通相之外無別染淨 故得總攝染淨諸法 生滅門者別顯染淨 染淨之法無所不核 故亦總攝一切諸法 通別雖殊 齋無所遣 故言二門不

이문은 체용상 삼대의 작용을 통해 서로 회통하며 작용한다. 인간은 진여의 존재이자 생멸의 존재 즉 不二 無二의 존재이며, 생멸로부터 진여로 나아갈 수 있는 일심의 존재이다. 이러한 일심의 마음은 분별을 넘어선 마음이며,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별상을 모두 포섭하고 있기에 둘이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³⁶⁾ 즉 불이이자 불일의 존재인 것이다. 생멸과 진여를 통섭하는 인간은 중생이자 부처이며, 진과 속을 넘나드는 존재 진속불이의 존재 즉 여래장으로서의 인간이기도 하다.

진속이 둘이 아니니,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을 이룸하여 여래장이라 한다.³⁷⁾

여래장으로서의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이며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³⁸⁾ 따라서 원효의 인간관은 진여와 생멸이 화쟁회통하는 불일불이의 인간, 진속불이의 인간 즉 화쟁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래장으로서의 중생이해는 모든 인간의 교육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³⁹⁾ 이는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음으로써 화쟁을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간, 그가 곧 화쟁교육의 인간인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우주를 연기설로 설명한다. 一中一切 多中一 一卽一切 多卽一, 즉 우주가 작은 입자 속에 들어 있으며 하나가 곧 전체이

相離也. 원효, 《기신론소》,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05.

36) 강의숙, <원효의 공부론>, 《동서철학연구》, 31, 한국동서철학회, 2004, p.235.

37) 眞俗不二 一實之法 諸佛所歸 名如來藏. 원효,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659.

38) 一切衆生悉有佛性. 원효, 《열반중요》,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538.

39) 이효령, 1999a, p.127.

며 전체는 또한 하나이다. 화엄경에서는 서로 입하고 서로 즉하는 것을 긍정한다. 즉 화쟁론의 근거는 광대한 화엄법계에 귀결될 수 있다. 어떠한 존재도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교리는 화쟁될 수 있다.⁴⁰⁾

이처럼 원효가 바라보는 세계는 화엄세계, 법계연기의 세계이다.

무장애법계법문이란 법이 없되, 법 없음이 없고 문이 아니되, 문 아님도 없다. 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이다. 크지 않으므로 극미가 되어도 남음이 없고, 작지 않으므로 대허가 되어도 남음이 있다. 빠르지 않으므로 능히 삼세겁을 머금고, 느리지 않으므로 온 통 체 그대로 일찰나에 들어간다. 움직이지도 고요하지도 않으므로,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이다. 하나도 아니고 많음도 아니므로, 일법이 일체이고 일체법이 일법이다.⁴¹⁾

일체법이 일법에 드는 연고로 하나 가운데 무량을 알고 일법이 일체법에 드는 연고로 무량한 가운데 하나를 안다. 그러므로 능히 서로 상입할 수 있는 것은 전전히 서로 거울의 그림자되어 생하고 실제로 생한 것이 아니므로 걸림이 없다.⁴²⁾

원효는 화엄경소에서 서로가 상즉상입하는 화엄세계, 자아와 세계 그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지 않는 연기세계를 보여준다. 서로가 서로를 생겨나게 하며 드나드는 상즉상입의 관계, 이것이 곧 연기세계

40)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서울: 흥법원, 1992), pp.125-126.

41) 原夫無障無碍得法界門者 無法而無佛法 悲門而無佛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 非促之故能含三世劫波 非奢之故舉體入一刹 不動不靜故生死爲涅槃 涅槃爲生死 不一不多故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원효, 《화엄경소》,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495.

42) 一切法入一法故一中解無量 一法入一切法故無量中解一也 所以能得互相入者 展轉互爲鏡影而生 非實而生故無障礙. 원효, 《화엄경소》,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496.

법계연기의 세계이다. 서로가 서로를 생겨나게 하며 비추어주니, 나는 너로 인해 생겨나고 너는 나로 인해 생겨나니, 이것이 곧 不二이며 또한 不二인 세계, 화엄의 세계 곧 화쟁세계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생겨나게 하고 작용하게 하는 상즉상입의 세계, 상호작용 상호공존의 세계가 연기세계이며 화쟁세계이다. 多中— 一即多,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는 곧 하나이다. 不二不二,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 있으니 한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인 것도 아닌 상즉 상입의 세계, 서로 공존하는 세계가 화쟁의 사회이며, 이것이 화쟁교육이 추구하는 화쟁사회의 모습이다.

이는 원효의 훈습론과 사집론을 적용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⁴³⁾ 이 문일심 일심여래장으로서의 인간은 진여와 생멸의 두 모습을 모두 갖춘 인간이며,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여래장으로서의 인간이다. 따라서 화쟁교육은 이들의 생멸하는 마음, 번뇌하는 현상적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고 청정한 진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화쟁교육은 갖가지 집착, 즉 자신에 대한 잘못된 집착(근대적 자아와 근대적 주체개념에 대한 집착=아집), 세계에 대한 잘못된 집착(=법집)을 떨쳐내고 불일불이의 올바른 자아이해 세계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교육이어야 한다.

훈습은 생멸로부터 진여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습은 향이 옷에 배이듯이, 지속적인 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른 생각과 태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⁴⁴⁾ 훈습은 무명, 즉 오염된 마음이 주가 되어 일으키는 염법훈습과 진여 즉 깨끗한 마음

43) 이효령,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교육사상>, 《건국대학교대학원논문집》, 40, 1995, pp.141-145; 정석환, 앞의 글, p.94; 권은주·신양재, 2014a, pp.116-121; 권은주·신양재, 2014b, pp.96-99; 김주후, <상호작용 관점에서 본 원효의 훈습론>, 《한국불교사연구》, 1, 2012, pp. 160-187.

44) 熏習義者 如世間衣服 實無於香 若人以香而熏習故 即有香氣.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68.

이 주가 되어 일으키는 정법염습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심의 생멸문 안에는 리와 사가 회통하며, 체가 생멸문 안에 머물러 있어 상과 용에 작용한다. 이처럼 원효의 화쟁은 진여와 생멸의 화쟁회통 가능성을 주장한다. 생멸문 자체에서 체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문의 화쟁회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훈습의 과정이다. 무명의 작용에 의해 염법훈습이 진행되지만, 원효는 화쟁적 이문이해를 통해 정법훈습의 가능성을 또한 열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능동적 인간이해는 훈습의 가능성,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법훈습의 내적계기가 자체상 훈습이라면, 외적 계기가 작용하는 것이 용훈습이다.⁴⁵⁾ 학습과 음미 명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일깨우는 용훈습은 화쟁교육에 다른 아니다. 이는 용으로서의 화쟁의 실천이며, 화쟁교육의 실천이다. 내적 계기와 외적 계기의 결합이며, 이를 통한 체와 상에 대한 작용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원효의 교육내용으로는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⁴⁶⁾ 이는 화쟁교육론의 주요 교육내용이기도 하다.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한 과정은 대치사집 즉 삿된 집착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이는 설명될 수 있다.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삿된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 즉 하화중생의 요체는 삿된 집착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⁴⁷⁾ 삿된 집착은 나에 대한 무지와 세계(法)에 대한 무지 즉 야집과 법집이다.

45) 眞如薰習義有二種 云何爲二 一者自體相薰習 二者用薰習,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 769.

46) 권은주·신양재, 2014b, p.96.

47) 故今下化衆生之要 令除疑惑而捨邪執.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36.

일체의 삿된 집착의 원인은 모두 아견이므로 삿된 집착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여의어야 한다. 아견에는 인아견과 법아견의 두 가지가 있다.⁴⁸⁾

인아견이란 총상의 주재자가 있다고 계탁하는 것이며, 이를 아집이라 한다. 법아견이란 일체 법이 각기 자성이 있다고 계탁하는 것이며, 이를 법집이라 한다.⁴⁹⁾

즉 나의 존재와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아집이며, 세상의 법(믿고 있는 진리 또는 세계관)이 스스로 믿을 만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법집이다. 화쟁교육은 이러한 아집과 법집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집을 제거하면 불이의 경지에 이르므로 자연히 自利行과 利他行을 시현하게 된다.⁵⁰⁾ 즉 스스로의 독선적 자아를 버리고, 연기의 세계를 깨우치는 것이 세계와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3. 화쟁교육의 실천원리

화쟁교육의 실천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일불이의 원리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불일불이의 사상이다. 화쟁은 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는 無二而不守—이자 不守—而無二의 사상이다. 화쟁은 진과 속이 융통하며, 중생과 부처가 회통하는 인간, 진속불이의 인간 화쟁인을 추구한다. 또한,

48) 對治邪執者 一切邪執皆依我見 若離於我 卽無邪執 是我見有二種 云何爲二 一者人我見 二者法我見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773.

49) 人我見者 計有總相率主之者 名人我執 法我見者 計一體法各有體性 故名法執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p.773-774.

50) 이효령, 1999b, p.316.

화쟁교육은 나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여럿 속에서 존재하니 비로소 나이며, 나의 존재는 그렇다고 여럿 속에서 없어지지도 않는다. 연기적 존재이며, 연기적 사회 속의 나이다.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는 不二의 연기사회를 추구하는 연기적 자아, 관계 속의 자아인 것이다.

둘째, 혼습의 원리이다. 옷에 향이 배이듯이, 화쟁교육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자극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혼습은 선과 악, 주체와 객체,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넘어서는 혼습과정 속의 회통과 화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염오의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공존하며 회통하니, 인간의 변화가능성을 무한 긍정하는 것이 혼습의 원리이다. 서양의 이분법, 이원적 대립이 아니라 공존과 회통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혼습의 원리이다. 교사와 학생은 내적 계기와 외적 자극이 결합하듯이 회통하고 상호작용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서양의 근대 교육 현재 한국교육의 한계라면, 화쟁교육은 염정이 통섭하고 체상이 작용하고 회통하며 넘나드는 상호작용 상호간섭이 교육의 과정이자 원리가 된다. 교육은 선과 악을 넘나들며, 염과 정을 상통하며 회통한다. 주체와 객체가 회통하고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 적극적 경계넘기의 교육이 화쟁교육인 것이다.

셋째, 用의 작용으로서의 화쟁교육의 원리이다. 원효의 사상체계 속에서 볼 때, 화쟁은 무애의 관계성을 지닌, 일심의 체의 마당에서, 인간이 펼치는 주체적 작용이다.⁵¹⁾ 화쟁은 일심과 무애를 실현하는 인간의 주체적 작용 즉 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쟁교육은 화쟁의 체와 상을 실현하는 적극적 작용, 즉 화쟁의 작용으로서의 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쟁교육은 화쟁의 정신(체), 화쟁의 상태(상)를 실제로 실현하는 주체의 적극적 능동적 작용, 즉 화쟁의 실현으로서의 용의 작용이다. 화쟁교육은 대립적 사고, 경쟁적 사고에 물든 인간의 변화를 적극

51) 이효걸, 앞의 글, p.10.

적으로 실현하는 능동적 적극적 실천작용으로서의 용으로서의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화쟁교육은, 원효의 실천적 대중교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화쟁의 원리, 화쟁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고 구현되는 구체적인 교육활동,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용 그 자체로서의 교육인 것이다.

넷째, 외적 계기와 내적 계기의 결합, 교사와 학생의 결합의 원리이다. 진여훈습은 내적 계기로서의 자체상훈습(체와 상)과 외적 계기로서의 용훈습(용)을 포함한다. 자체상이 그 속에 진여의 본체와 성덕이 스스로의 체와 상으로 나타낸 것⁵²⁾이라면, 용훈습은 외부의 작용, 진여의 활동능력에 근거한 훈습⁵³⁾이다. 따라서 화쟁교육은 학습자의 내적 본래의 훈습력 즉 내적 계기와 외부자극을 통해 내적 계기를 이끌어내는 외적 계기의 결합, 학생의 본래적인 교육훈습력의 발현과 교사의 적극적 외적인 교육자극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해 온 근대 교육의 대안으로서 화쟁교육을 추구해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II장에서 화쟁교육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쟁사상은 서구의 동일성의 사유체계, 실체론과 이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불일불이의 사유체계, 즉 연기론과 차이의 철학, 생태적 사유체계를 통해 한국교육의 대립과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52) 오지섭, <대승기신론의 진여훈습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6, p.64.

53) 이효령, 1999a, p.132.

수 있는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원효는 승려이자 교육자이기도 하였으며, 그의 삶은 화쟁의 삶이자 화쟁교육의 삶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효의 화쟁사상은 화쟁교육의 사상으로 분석하여 재구성해볼 수 있다. 셋째, 원효의 일심무애화쟁의 사상체계 속에서 화쟁은 실천적인 용으로서의 적극적 능동적 의미를 지니는 사상이다. 즉 원효의 화쟁사상은 훈습을 통한 중생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천적 작용으로서의 용의 사상이다. 따라서 화쟁사상은 화쟁의 능동적 적극적 실천적 작용으로서의 화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 이 연구는 화쟁교육론을 교육목적, 교육의 실천원리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쟁교육론의 교육목적은 불일 불이의 인간, 불일불이의 사회로써 화쟁인과 화쟁사회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먼저 화쟁인은 진속불이, 일심여래장으로서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인간, 즉 불일불이로서의 인간이다. 다음으로 화쟁사회는 화엄세계 법계연기의 세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며 생성하는 상호생성의 세계, 연기의 세계인 화쟁세계 화쟁사회이다.

둘째, 화쟁교육의 교육내용은 화쟁인과 화쟁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쟁인의 추구과정은 생멸에서 진여로의 전환과정, 즉 훈습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상 훈습인 내적 계기와 외적자극으로서의 용훈습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화쟁사회의 실현과정은 집착을 버리고 不二의 경지인 무분별지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 이는 독립적 고립적 자아를 추구하는 인집, 잘못된 진리와 세계를 추구하는 법집을 제거한 후 연기세계의 참 실상을 자각하는 것이 주요 구성 내용이다.

셋째, 화쟁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지침인 교육의 실천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일불이의 원리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 모든 것의 실상이 화쟁의 원리 즉 불일불이임을 깨닫게 하는 교육원리이다. 다음으로, 훈습의 원리는 회통과 화쟁을 통한 훈습의 교육원리

이다. 이는 염정통상, 체상용의 회통, 외적계기와 내적계기의 결합 등을 통해 점차 진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교육의 주된 원리이다. 다음으로 용의 작용원리는 화쟁을 구체적 실천적인 용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화쟁교육이 용, 즉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 체와 상을 실현하는 교육이다. 이는 주체의 능동적 작용(즉 용)을 통해 모든 사람의 본래의 마음(즉 체와 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쟁교육론의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쟁교육론은 자아개념과 주체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교육론이 성립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별적 자아, 독립적 자아, 주체의 개념은 근대교육의 기본가정이자 주요 구성요소이다. 근대교육은 개인, 주체,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사회의 합리성을 구현하고 있는 주체이며, 개인이자 독립적 인격체인 자아이다. 이들은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본으로 양성되고 평가된다. 이 속에서 개인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경쟁 속에 매몰되어 왔다. 경쟁교육, 도구주의 교육의 폐해가 바로 그 결과이며, 학교는 생산성을 위한 부품기계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바로 이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입시경쟁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속의 자아는 서구 근대의 개별적 자아, 고립적 자아이다. 분단교육의 자아는 적과 아,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는 철저한 이원론적 대립적 자아를 강요해왔다. 개발주의 교육 역시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분리, 인간과 인간 간의 분리적 관계 속에 위치한다.

화쟁교육은 실체론을 부정하고 독립적 자아의 개념을 연기의 관계성으로 대치하고자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연기적 자아이며, 관계성 속의 자아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 선과 악,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또한 그

근거가 없다. 나는 주체이자 또한 객체이며, 객체인 자연 또한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또 다른 나, 즉 큰 자아로서의 나에 다름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나고 자란 어머니 자연 그 자체이며, 나의 또 다른 살이자 피이며, 생명 그 자체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 나와 연기적 관계 속에 놓인 또 다른 나이며, 나 또한 그들의 일부이다. 세상은 선악의 논리,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가공존의 의미를 지니는 파르마콘의 논리로 존재한다. 나와 자연, 나와 다른 학생, 남한과 북한은 대립이 아니라 차이가 세상의 실체이며, 동일성이 아니라 불일불이의 관계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다.

둘째, 화쟁교육은 근대교육이 추구해 온 효율성과 생산성 대신 공존과 자연, 생태적 가치를 추구한다. 근대사회는 산업사회의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발전과 개발, 자연의 도구화와 착취, 이를 통한 생산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기본가치이다. 이는 근대교육의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근대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학교지식은 구성되고 운영되며, 교육은 점수화 수량화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소외되고, 비인간화되며, 학교교육은 생산성을 위한 부품공장으로 전락해 왔다.

화쟁교육은 효율성과 생산성 대신 자연과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사람과 사람 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연기적 사회 생태적 사회 화쟁사회를 추구한다. 다른 사람들, 모든 생명들, 우주 내의 모든 존재들은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또 다른 나이며, 그들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그들로 인해 내가 호흡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자연, 사회, 인간 모든 것이 공존하는 생태적 가치가 화쟁교육의 기본가치인 것이다.

셋째, 화쟁교육은 교육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으며, 그 어떠한 허무주의나 회의론도 부정한다. 21세기의 대안적 사상으로 주목받아 온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는 근대교육이 추구해 온 가치나 도덕을 전면 부정하는 해체적 사유의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로 인해

허무주의나 대안부재의 문제점 또한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화쟁은 해체적 특징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해체하지는 않는다. 불일불이의 사상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른 주장을 부정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리의 타당성을 찾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⁵⁴⁾ 이런 점에서 화쟁은 데리다의 해체주의보다는 마이클 라이언⁵⁵⁾의 비판적 접목을 위한 해체, 새로운 재구성을 위한 해체에 차라리 가깝다. 이원적 대립,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근원인 동일성과 실체론은 부정되지만, 그러나 연기적 자아 관계성 속의 자아를 통해 끊임없이 자아는 재구성된다. 각각의 독립적 개인은 부정되지만, 각각의 주장은 부정되지만 동시에 긍정되며 보다 더 큰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화쟁교육의 특징인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화쟁교육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대적 교육론, 한국의 경쟁적 대립적 교육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론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화쟁교육론은 불일불이의 논리체계를 통해 개인중심주의의 교육, 생산성과 효율성에 매몰된 교육, 경쟁에 내몰린 신자유주의 교육,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강조하는 교육의 새로운 대안적 교육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일불이의 교육은 연기적 자아, 관계성 속의 자아를 추구하며, 이는 독립적 자아, 고립적 자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불일불이의 교육은 도구화 수단화교육, 분단교육, 개발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교육을 인간중심의 교육,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자연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지식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화쟁교육은 자연과 인간, 우주에 관한 실상을 그대로

54)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서울: 세창출판사, 2017), p.41.

55) Ryan, M. 저, 나병철·이병훈 역, 《해체론과 변증법》(서울: 평민사, 1994), p.10.

보여주기에 대안적 교육론으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의타기성(依他起性)이 생멸세계의 존재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식이다.⁵⁶⁾ 화쟁사상은 동일성이나 대립이 아니라 대자연이 본디 불일불이로 존재하며, 이러한 이해방식이 자연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방식임을 보여준다. 자연, 인간, 세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동일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타기성으로, 연기의 관계로 존재한다. 입시교육과 신자유주의 교육의 경쟁논리, 개발주의 교육의 자연지배, 분단교육의 대립적 이분법적 사고는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다. 화쟁교육은 바로 이러한 나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방식을 추구하는 교육이며,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병폐와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대안적 교육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원효, 《金剛三昧經論》, 《한국불교전서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원효, 《大乘起信論疏》, 《한국불교전서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원효, 《大乘起信論疏記會本》, 《한국불교전서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원효, 《涅槃宗要》, 《한국불교전서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원효, 《華嚴經疏》, 《한국불교전서1》(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일연 저, 최호 역, 《三國遺事》, (서울: 흥신문화사, 2002)
- 강의숙, 〈원효의 공부론〉, 《동서철학연구》, 31, 한국동서철학회, 2004.

56) 김형효,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그 철학적 함의〉, 《천태학연구》, 10, 2008, p.203.

- 고영섭, <원효의 화엄학>, 《한국의 사상가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 《한국영유아보육학》, 86,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a.
-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마음이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I>, 《한국영유아보육학》, 8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b.
-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인식론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 《한국영유아보육학》, 71,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a.
- 권은주·신양재,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인식의 유아교육적 의미 연구 II>, 《한국영유아보육학》, 7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b.
- 김노연, <원효의 대승적 창조적 전인 실천교육>, 《창조교육논총》, 창조교육학회, 14, 창조교육학회, 2012.
- 김영태, <열반경중요에 나타난 화회의 세계>, 《한국의 사상가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p. 282.
- 김종인, <체용과 원효의 화쟁>, 《동양철학연구》, 24, 동양철학연구회, 2001.
- 김주후, <상호작용 관점에서 본 원효의 훈습론>, 《한국불교사연구》, 1, 2012.
- 김형효,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그 철학적 함의>, 《천태학연구》, 10, 2008.
- 노상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민주적 교육논리>, 《한국교육연구》, 5,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99.
-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서울: 세창출판사, 2017).
-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서울: 들베개, 2004).

- 안승대,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따른 한국교육문제의 분석〉, 《교육학 연구》, 42(4), 한국교육학회, 2004.
- 안옥선, 〈평등, 자유, 자비의 실천으로서의 화쟁〉, 《철학》, 82, 한국철학회, 2005.
-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서울: 흥법원, 1992).
- 오지섭, 〈대승기신론의 진여훈습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이도흙,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서울: 자음과 모음, 2015).
- 이두휴, 〈교육경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9(1), 한국교육사회학회, 1999.
- 이종익,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한국의 사상가 10인-원효》(서울: 예문서원, 2002).
- 이효걸,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002.
- 이효령, 〈대승기신론소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교육사상〉, 《건국대학교대학원논문집》, 40, 1995.
- 이효령,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I〉, 《한국사상과 문화》, 3, 1999a.
- 이효령, 〈원효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II〉, 《한국사상과 문화》, 3, 1999b.
- 정석환, 〈교육목적론의 입장에서 본 대승기신론〉, 《교육사상연구》, 11, 한국교육사상학회, 2002.
- 조순영·임재택, 〈원효사상의 유아교육적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 연구》, 14(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 Ryan, M.저, 나병철·이병훈 역, 《해체론과 변증법》(서울: 평민사, 1994).
- Sarup, M. 저, 이해영의 역, 《마르크스주의와 교육이론》(서울: 한길사, 1987).

Ulich Beck 저, 홍성태 역, 《위험사회》(서울: 새물결, 1997).

※ 이 論文은 2020年 8月 15日 投稿 完了되어 2020年 9月 15日까지 審査委員들이 審査하고, 2020年 9月 20日까지 審査委員 및 編輯委員會議에서 掲載로 判定되었습니다.

Exploring the Theory of Hwajang Education

An, Seung-Dae
(MyungJi Univ.)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heory of Hwajang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modern education, which has pursu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heory of Hwajaeng education is bas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Hwajaeng, the fact that the theory of Hwajaeng show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ducation theory through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reality theory and dichotomy in the West, and that Wonhyo was also a Buddhist monk and educator, and that Wonhyo's Hwajaeng theory can be analyzed and reconstructed as the idea of Hwajang educ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theory of Hwajang education as the principles of education practice, such as human beings who are neither one nor two, educational purpose of pursuing Hwajaeng society as a society of neither one nor two, educational contents on seeking a man of Hwajaeng and Hwajaeng society, and the principles of Yong(用), respective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discus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ducational theories in Hwajaeng education theory as follows. First, Hwajaeng education theory shows the possibility of a new educational theory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self-concepts in the acting self-relationship instead of the isolated independent self that modern education

has pursued. Second, Hwajang education pursues coexistence, nature and ecological values instead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at modern education has pursued. Third, Hwajang education opens up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indefinitely, and denies any nihilism or skepticism.

Key Words : Theory of Hwajang, Theory of Hwajang Education, neither one nor two, a man of Hwajaeng, Hwajaeng society.